신작 찬불가 "여름잔치"

이찬우씨 내달 3일·불교음악 연구회 7월1일 발표 무대

불음가곡·대금 변주곡·신디사이저 반주곡등 '눈길'

새 불교음악이 무더기로 발표된다.

6월3일 오후 7시30분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이찬우 작곡발표회'와 7월1일 오후7시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리는 불교음악연구회(회장 정부기)의 신곡발표회는 불교음악의 영역을 넓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두 공연은 신곡발표 외에도 기존의 불교음악을 변형시킨 작품과 의식찬불가의 차원을 넘어선 가곡풍의 작품을 내놓는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63년 '청법가'를 발표한 이래 계속 찬불가를 작곡해 오다가 처음으로 발표회를 갖는 이찬우씨는 6월3일의 공연에서 신작가곡 '청산은 나를보고'를 선보인다.

이밖에도 찬불 가곡 17곡을 독창과 중창, 합창으로 발표한다. 이날 무대는 주로 솔로곡으로 꾸며지지만 '일천강에 비친 달'과 '어느 산사의 사계절'은 부산 천불사 우담발화 합창단과 불광사 바라밀다합창단이 합창으로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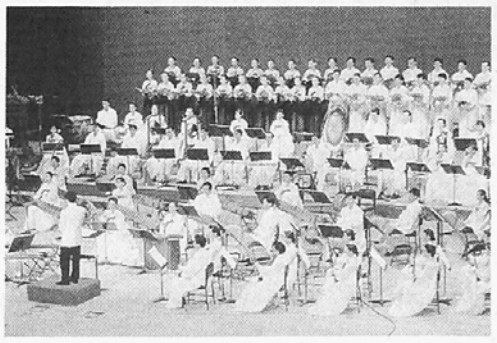
이찬우씨가 이날 발표하는 곡들은 전문성악가를 위한 불교적 서정 가곡들이다.

7월1일 불교음악연구회의 공연에서는 주로 중앙대 대학원에서 공부한 젊은 작곡가 이진구, 최은숙, 김수미, 현연주씨 등의 신작 불교음악을 만날 수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이진구씨가 '사홍서원'을 피아노 변주곡으로 변형시킨 작품을 내놓으며 '삼귀의'는 김수미씨가 피아노 변주곡과 클라리넷 변주곡으로 새롭게 해석해 선보인다. 또 최은숙씨도 '사홍서원'을 대금변주곡으로 내놓는다.

불교가곡과 찬불가 외에 기존 찬불가의 변주곡을 선보이는 무대는 이번이 처음이다. 불교음악연구회는 이날 공연에서 신작 합창곡도 내놓는다. 발표될 합창곡은 정부기교수의 '부처님 오신 날'과 '대각선사 바라보며', 이진구씨의 '산사의 저녁' 등이다. 법인정사, 삼보사등 사찰 합창단이 부르는 이들 합창곡은 피아노 반주외에도 신디사이저를 동원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

불교음악연구회는 이 공연에 앞서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의 창작곡을 모집하고 있다. 채택된 곡은 7월1일 공연에서 연주하게 되며 소정의 상금도 지급한다. (02)682-3674

임연태 기자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장면.

'불교음악과 국악의 하모니'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불교음악과 국악의 만남'을 주제로 한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단장 김영동)의 제2백1회 정기 연주회가 지난 19일 오후7시30분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관악영산회상'과 '회심곡'등 전통음악과 국악교성곡 '예불'(박범훈 작곡) '보렴, 화초사거리'(김희조 편곡)등이 김희조씨의 지휘로 공연됐으며 중앙불교합창단이 '오늘은 기쁜 날'등 찬불가를 불렀다.

국악과 신입생 연주회

동국대, 지난 17일 원효관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국악과 신입생 연주회가 지난 17일 오후5시 교내 원효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올해 신설된 동대 국악과의 신입생들은 이날 연주에서 전원이 영산회상중 '염불도드리와 타령'을 연주했으며 피리산조, 가곡 '편수대엽'등 다양한 장르의 국악곡을 무대에 올렸다.

불심시심 〈17〉

남길 물건 없다

獨坐深山萬事經 (독좌심산만사경) 홀로앉은 깊은 산 온갖 일 흘가분
掩關經日學無生 (엄관경일학무생) 무생을 배우려 문닫고 세월 보내,
生涯點檢無餘物 (생애점검무여물) 훑어본 평생살이 남길 것 없고
一椀新茶一卷經 (일완신다일권경) 새로운 차 한잔, 한 권의 경전.

이 시는 부휴대사가 그의 스승인 벽암선사와 주고 받은 몇 수 안되는 시 중의 한 수이다. 스승에게 드리는 시이기에 자신의 근황을 알리는 단순한 시 같으면서도 여여한 법리의 실상을 담박하게 표현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깊은 산에 홀로 있는 스님, 산 아래의 모든 세속적 일을 여의고 떠나온 곳이다. 시내서는 온갖 일이 가볍다 하였지만 사실은 온갖 일을 잊고 있는 것이다. 어찌 일 뿐이랴 일이 될 수 있는 기미마저도 잊은(忘機) 것이 스님이다. 이런 속에서 문을 닫고 세월을 보낸다. 굳이 닫을 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모든 연을 여읜 스님에게는 열다 닫다 함이 굳이 설정될 수 있는 행위적 개념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경계 설정을 위해서 편의적으로 말해 보는 문이다. 여기서 무엇을 익히는가. 생이 없음을 익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을 닫는 이유를 알게 한다 태어남이라 할 수 있는 생은 이미 어느 한 사실에 대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존재할 수 있다. 그야말로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다. 그러기에 문을 닫아야만 이 무생을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선을 닦는 참선의 생활이다. 이러한 삶에 대하여서야 굳이 다져 보거나 추스려 볼 것이 없지만 그래도 한 번 점검해 본다면 이미 남아있는 물건이 없음이 현실이니 앞으로도 남길 물건 또한 없음이 현실이다. 그래도 생애라는 말의 의미가 암시하듯이 삶의 언저리가 바로 삶의 현실이라 한다면 새로이 끓이는 한 잔의 차와 시선의 거리에 제한을 가하는 한 권의 책은 바로 현재라고 하는 삶의 현실 바로 그 당처이다.

이종찬 〈동국대학교 교수〉

심사받는 기회·어린이곡도 만들 터

인터뷰 첫 발표회 갖는 이찬우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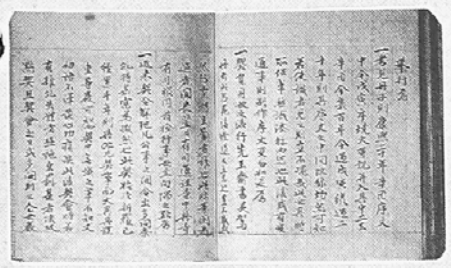
32년만에 첫 발표회를 갖는 이찬우씨는 자신의 작품 '청법가'보다 덜 알려진 작곡가다. 부산에서 칩거하며 간간히 작품을 내놓았을뿐 자신의 곡들로 무대를 마련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6월3일 발표회를 갖는다.

"찬불가의 질적 향상은 작곡가들의 노력에 달린 것입니다. 그간은 전문성악가를 위한 곡들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격조높은 찬불가곡 만들기에 제 기량을 총동원했는데 이번 발표회는 불자들에게 심사를 받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처음 갖는 발표회라서 긴장되기도 합니다."

이씨는 1백곡 이상되는 자신의 작품을 아직 한권의 책으로 묶는 작업도 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곡들을 만들고 보급하는 일이 더 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작곡집도 묶어야 겠지만 보다 훌륭한 곡을 만드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내야죠. 찬불가곡과 어린이찬불가등을 계속 작곡할 계획입니다."

〈태〉



국내 最古 '미타계첩' 햇빛

고미술 수집가 유삼환씨 강릉박물관에 기증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계의 계첩(契帖)이 발견됐다.

고미술수집가 유삼환씨가 강릉 최씨 문중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을 최근에 강릉시립박물관에 기증함으로써 세상에 공개된 강릉 보현사 〈미타계첩(彌陀契帖)〉은 필사본으로 가로 26.5㎝, 세로 27.2㎝, 모두 60장으로 되어 있으며, 표지는 두꺼운 감청색 저지(楮紙)에 오침선장(五針線裝)으로 꾸며져 있다. 이 계첩은 옛날부터 전해오던 것을 1779년 개장한 것으로서 첫 장에는 강희20년(1681) 신유6월에 쓴 서문이 있다.

미타계는 강릉 지역 보현사 신도들이 아미타불을 받들던 계 모임으로서, 계헌(契憲)에 따르면 신라때부터 비롯되어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천년을 넘게 이어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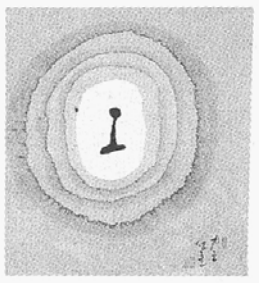
통도사 성보박물관등 문화재사업 173억 투자

경남도는 올해 국비 76억원, 도비 50억원, 시군비 42억원, 자부담 5억원 등 모두 1백73억원을 들여 통도사 성보박물관 건립등 문화재 보수사업 1백17건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11일 도에 따르면 통도사 성보박물관 건립, 옥포대첩지 정비등 59건의 문화재 정비사업을 1백19억원을 들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성륜스님 '그림이야기'

24일부터 인사동 갤러리…30여점 출품



◇성륜스님의 작품 '돌이켜보는 삶'

성륜스님의 '성륜그림이야기'가 오는 24일부터 인사동 갤러리 서호에서 열린다.

그동안 설치미술과 11번의 전시회를 가진 성륜스님은 '돌이켜 보는 삶'이라는 주제의 이번 개인전에 30여점의 작품을 내놓는다.

"잿빛 승복색깔로 잿빛향기를 그림에 표현했다"는 스님의 작품들은 회색톤으로 일관되게 색감을 살리고 있어 조형감각을 두드러지게 느끼게 한다.

송월(淞月)스님의 7순기념 사군자·선서화 특별전시회가 오는 31일부터 6월6일까지 백상갤러리(720-1708)에서 열린다.

펜으로 그린 그림세계

최홍원씨 펜화전

◇최홍원씨작 「금시조」

유화와 함께 펜화를 즐겨 그려 온 최홍원씨가 펜화전시회를 17일부터 23일까지 일정으로 관훈미술관 특관에서 갖고 있다.

불교의 세계와 서낭당, 새등을 주제로 한 최씨의 펜화는 섬세함과 형상의 변형을 통한 감동의 세계를 펼쳐 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새시리즈와 인간시리즈 단테의 신곡시리즈 등 작품을 내놓았다.

홍씨는 6·25당시 군복무시절부터 펜화를 시작 '인간' '풍경' '새'등 시리즈물과 5백나한등의 작품 1천5백여점을 그려왔다.

박형덕씨 풍경화전

'영목의 봄'등 작품전시

박형덕씨의 풍경화전이 17일부터 23일까지의 일정으로 공평아트센타에서 열리고 있다.

불자화가 박형덕씨는 이번 전시에 '영목의 봄'등 풍경화와 인물화등 유화작품을 내놓았다.

불음가득 법향가득
책방 여시아문

문화단신

월정사 '오대법보' 창간

'오대성지이야기'등 수록

월정사 사보 〈오대법보〉가 5월호로 창간됐다. 창간호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축사와 방한암 대선사 일대기를 비롯해 오대성지 이야기, 아함의 세계, 월정사 소식 등을 실었다.

발행인 현해스님은 창간사에서 "〈오대법보〉를 통해 한암대종사께서 이루어 놓으신 오대산 가풍을 되살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예술경연대회 도선사등 14팀 참가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박현성)가 주최한 '제8회 청소년 종합예술경연대회'가 지난 14일 1천3백여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대에서 열렸다.

부처님 오신 날 및 청소년의 달을 맞아 열린 이날 행사에는 도선사, 명성여중고, 자비예술단, 광동중학교, 조계사, 구룡사, 청교련 온양 안산지부, 대구경북지부등 14개팀이 참가, 풍물 화관무 창작민속무용 한국무용 합창 연극 등 다채로운 경연을 펼쳤다. 이날 대회에서는 한국창작무용을 선보인 자비예술단이 문화체육부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통문화사진 공모 대한불교신문사

대한불교신문사(발행인 혜총)는 제4회 한국전통문화 예술사진전 출품작을 공모한다.

모집대상은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관련된 흑백·칼라사진으로 미발표작에 한한다.

(051)867-1515, (02)738-6156

진리의 전화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
구룡사 부설 인생상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지혜의 문이 있습니다. 진리의 전화가 있습니다.
상담전화 (02) 579-3033

30초 건강비법 "편작전자침" 공개

보사부 제조허가 제 502호 제조원 : (주)성한 앤드김
보사부 제조품목허가 제 1호 공급원 : (주)대 진 상 역

막힌 혈을 뚫고 멈춘 피를 돌게하는 무통무혈의 신비의 한방전자침

특수센서가 스스로 "경혈"을 찾아주는 전자동 전자침 (하루 20분 투자로 온몸이 편안해 집니다.)

89년 화타전자침 국내 최초개발
7년간의 기술 축적으로 95년 "편작전자침"으로 탄생

컴퓨터가 침 자리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동양침술의 기적 "편작전자침"은 침술의 고장 중국을 비롯 미국·영국등 세계 곳곳에 수출되어,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는 가정상비용 전자침입니다.

가정비상용 컴퓨터 전자침
살갗을 뚫지 않아 부작용이 없고 누구나가 안전하게 사용

미국·영국수출

국제 보증서로 1년간 아프터 써비스 보장

지금!! 바로 주문 하십시요

▶감도조절기 편작전자침의 핵심 기능인 침놓는 자리(경혈)를 정확하게 찾아줌
▶주파수조절기
▶강도조절기 침의 혹수(1호~7호)
▶개폐스위치 전원스위치를 ON에 놓으면 탐색등에 불이 켜짐
▶치료버튼 극초 저주파를 경혈에 주입시키거나 경혈 탐색기능
▶10단 탐색등(3단적색, 7단청색) 침자리를 접근하면서 청색등이 차례로 들어와 침자리에서 적색등 꺼짐
▶탐색 및 치료침 살갗을 뚫지 않고 경혈에 특수전류 자극하여 부작용이 없고 누구나가 안전하게 사용
24K순금도금 ▶
보(+), 사(−)스위치 침의 보(+) 사(−) 스위치로서 질환에 따라(+)(−)로 맞추어 사용

■편작전자침은 수침, 족침, 이침, 체침을 모두 놓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도 깜짝 놀라는 신비의 단방비법 *

■ 가정에서 누구나 손쉽게 신비의 침술을 직접 체험해 보세요!
● 편작전자침은 수침, 족침, 이침, 체침을 모두 놓을 수 있습니다.
● 누구나 침을 놓을 수 있다.
● 침자리(경혈)을 스스로 찾는다 (특수센서)
● 살을 뚫지 않는다.
● 시술시 전혀 아프지 않다.(무통)
● 부작용이 전혀없다(순금도금)
● 안전하다.
● 효과가 매우 신속하다. (급성질환에 직효)
● 엄마가 아기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직접 침을 놓을 수 있다.
● AIDS나 간염에 감염될 우려가 없다.

■ 가정상비용 전자동 전자침
● 가정·학교·직장·운동팀·체육관·헬스크럽·테니스·골프장·에어로빅

보너스 1 편작 보감 Ⅰ
•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361혈의 정확한 위치 치료질환이 칼라도해로 쉽게 설명
• 침으로 치료 가능한 모든 질환의 경혈이 색인으로 첨부
• 전문인을 위하여 14경락별 경혈을 세계공통기호로 표시
• 총350여 질환의 비방 수록
• 칼라 4×6배판 460쪽

보너스 2 편작 보감 Ⅱ
• 전면을 실제 인체를 촬영하여 질환별 경혈점 표시
• 칼라 4×6배판 192쪽

■ 비법에 수록된 비방 128가지
두통, 편두통, 조루, 고·저혈압, 위산과다, 안성변비, 동상, 당뇨병, 치통, 감기, 생리통, 불순, 냉대하, 기미·주근개, 알콜중독, 담배끊는 혈, 정력증강, 좌골신경통, 임포텐스, 설사, 위·십이지장 궤양, 금체, 풍치, 구강악취, 편도선염, 아뇨증, 무릎통증, 관절염, 팔·다리의 저림 마비, 각종 얼좌, 여드름, 숙취, 테니스·골프·엘보우, 허리통증, 졸도, 습진, 소화불량, 불면증, 콜레스테롤 등

보너스 3 실체 경혈도 3매
• 실제 인체를 촬영하여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체계적 경혈 표시 • 4절지 3매

보너스 4 건강생활 대강좌
■건강강좌 유명 강사진 —
홍문화(약학박사) 유태종((식품공학박사) 한국남(의학박사)
1 지궁암·유방암 2 원만한 부부생활
3 술·담배와 건강 4 올바른 식사의 지혜
5 당뇨병, 고혈압 식이요법 6 간장병, 신장병 식이요법
• 카세트테이프 6개, 총12강좌, 자연의학연구회

보너스 5 건강교실(가정건강지침서)
1 당뇨병백과 2 고혈압백과 3 신장병백과
4 간장병백과 5 암백과 6 심장병백과 7 위장병백과
8 호흡기질환 9 관절염 류머티즘 10 자율신경실조증
*편집위원 : 홍문화, 유태종, 김경빈, 원태진(전10권)

보너스 6 이침(耳) 경혈도2매
• 인체의 상응 부위를 그림으로 세밀히 표시
• 이침 혈자리를 정확히 감지

보너스 7 이침(耳) 사용비법 및 비방
• 편작전자침으로 이침 진단법 및 사용법 공개
• 최신 중국 이침 처방공개(금연, 금주, 미용 등)

보너스 8 편작 36 비방
•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걸리는 36가지 병의 비방 공개

* 상품 8가지를 추가로 증정합니다. *

수신자 부담서비스 080-922-7777 이 전화는 받는쪽에서 부담합니다.

특별공급가 ₩158,000원
■분 할 가 ₩ 30,000 × 6회
☎전화 주문 하시면 배달해 드립니다.
VISA LG
*카드소지자 장기분할 혜택드림

구입처
■서울
●서울 02)712-8711/2
●서울 02)714-9632/3
■경기도 (인천 부천 부평) ●인천 (032)502-5533 (수원 오산 평택 안성) ●수원 (0331)42-2908 (안양 의왕 안산) ●수원 (0331)45-2904 (성남 하남 광주 이천) ●성남 (0342)732-1257 (의정부 일산 파주 동두천) ●의정부 (0351)874-3174
■충청도 대전 옥천 금산 영동 충남전역 ●대전 (042)581-0151 청주 충주 조치원 공주 충북전역 ●청주 (0431)65-8180
■경상도 (부산 김해 양산) ●부산 (051)628-2489 (대구 경산 영천) ●대구 (053)653-0623 (울산 언양 기장) ●울산 (0522)60-7996 (포항 구룡포 연일) ●포항 (0562)81-2976 (경주 안강 감포) ●경주 (0561)749-6586 (상주 영주 단양) ●상주 (0582)34-0630 (안동 청송 영덕 영양) ●안동 (0571)52-7706 (구미 왜관 김천 성주) ●구미 (0546)456-4600 (마산 창원 진해 충무) ●마산 (0551)56-7685 (진주 사천 삼천포) ●진주 (0591)746-7551
■강원도 (춘천 가평 화천 양구) ●춘천 (0361)51-0007 (원주 횡성 홍천 제천) ●원주 (0371)46-8260 (강릉 주문진 속초) ●강릉 (0391)42-6830 (동해 삼척 태백) ●동해 (0394)32-5725
■전라도 광주 나주 목포(전남지역) ●광주 (062)524-8110 전주 이리 군산 김제(전북지역) ●전주 (0652)252-8862 (여수 여천 순천 광양) ●여수 (0662)666-2037
■제주도 (제주 서귀포 성산포) ●제주 (064)56-3007